
 <b>인천광역시</b>	<b>보 도 자 료</b>		 <b>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</b>
<b>담당 부서</b> 관광마이스과	<b>배포일자</b>	2023년 10월 12일(목) 총 4매	
	<b>담당자</b>	• 관광마케팅팀장 오현주 ☎440-4001 • 담당자 최정환 ☎440-4003	
<b>사진(이미지)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<b>참고자료</b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<b>보 도 시 점</b>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시,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로 지역상권 소비 진작

### - 새롭게 변한 중국 관광시장 트렌드 반영한 맞춤형 전략 추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중국이 지난 8.10.부터 한국, 미국 등 78개국에 대한 자국민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, 중국 단체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중국의 단체여행 허용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이 중단된 지 3년 7개월여 만으로, 시는 인천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경제와 상권에 큰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에 개별여행객 증가 등 새롭게 변한 중국 관광산업의 환경과 트렌드에 알맞은 맞춤형 전략을 세워 3대 분야 4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.

먼저, 3대 분야 사업으로 △관광도시 인천 브랜드 가치 제고 △방인 수요 확대를 위한 차별화 마케팅 △지속가능 관광생태계 조성·지원을 선정했다. 이와 관련된 4개 중점사업은 △주요 타깃별 시장공략 및

로드쇼 개최 △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△중국 특수목적 관광 상품개발 및 유치 △관광산업 수용 태세 협력 강화 등이다.

특히, 하반기 이후에 기업 포상관광, 체육스포츠 교류단체 및 문화 예술 국제교류 등을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10억원으로 확대 할 계획이며, 숙박·문화체험·축제·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 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에도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전략이다.

또한,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, 정부의 지역관광 육성 정책 등 지역관광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, K-컬처 콘텐츠 생성과 인플루언서, 해외 홍보대사 등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확산에도 힘을 계획이다. 따라서 시는 한국관광공사, (재)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의료웰니스·마이스분야 관련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, 내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K-컬처 콘서트의 연계상품 개발도 협의할 예정이다.

더불어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규모 입국에 대비한 크루즈·카페리의 정상운항과 인천항국제 여객터미널 내 관광안내소·의료홍보관 및 편의시설의 조속한 재개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.

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“중국 정세변화에 따라 지금의 관광 정책도 변할 수 있지만, 최근 관광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인천관광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” 이라고 말하며, “관광 안내 서비스 및 가이드북,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등으로 편의성을 제공하고, 대표 축제와

상징물 개발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인천의 아름답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겠다” 고 말했다.

[관련사진]

<p>(2023.6.15.) 1883 인천맥강파티' 개최</p>	<p>(2023.7.17) 개회식 및 차이나타운 인천투어 - 2023 WMI 세계수학경시대회</p>
	
	